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쌓으신 업적

박 금 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니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292페이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됩시다.》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한생을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려는 철석의 신념을 다지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어긋나는 현상과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쌓으신 업적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드림없는 신념으로 받들어나가신것이다.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 강적들을 타승하였다. 우리 혁명은 그 첫걸음부터 자기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여왔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진리로 받아안으시고 견결히 옹호고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간직하시였다.

수령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지 못하면 혁명로선도 모르고 혁명정세도 옳게 보지 못하며 나중에는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으로만 앞을 내다보는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먼 앞날까지 내다보게 된다고, 혁명가의 사상이란 곧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혁명가의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시고 꾸준히 학습하시였다.

항일의 나날 전투와 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적구공작과 형언할수 없는

어려운 조건과 집요한 적들의 추격속에서 학습할 시간을 따로 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순간도 멈추지 않으시였다.

행군의 설참이나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고 탐독하시였고 군정학습에서는 누구보다 학습과 토론에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백석탄밀영에서의 군정학습에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시였으며 주체32(1943)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앞에서 하신 연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접하시였을 때에는 낮에 밤을 이어 때식까지 건너가며 꾸준히 학습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습회에서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자》는 제목으로 로작의 사상에 기초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논리정연하게 토론하시여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과 깊은 인상을 남기시였다.

이런 꾸준하고 정력적인 학습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시였고 높은 정치사상적자질을 갖추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사고하고 실천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은 김정숙동지의 모든 사고와 실천의 기준이였고 지침이였다.

1941년 4월 쏘일중립조약의 체결소식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것은 쏘련이 일본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는 판이 다 망가졌다고 하면서 락심천만해하였고 우리 혁명이 마치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진것처럼 생각하면서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우려하고 비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교활한 일제는 저들이 쏘련과 손을 잡았다느니, 일본군은 중국전선에서 승리하고있다느니, 조선인민혁명군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느니, 무모하게 저항하지 말고 귀순하라느니 하는 악선전에 더욱 매여달리였다.

적들은 조선의 혁명가들에게서 신념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어용출판물들을 동원하는 한편 사람의 발길이 닿아본적도 없는 천고의 수림속에까지 모락과 허위로 가득찬 종이장들을 하얗게 뿌려놓았다.

일제의 악선전이 실린 신문 한장에 낄을 잃고 비판하다가 투항변절한 지갑룡의 사건에서 심리적자극을 받은 훈련기지안의 일부 대원들속에서도 마음속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동요를 간파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밝혀주신 사상에 기초하여 쏘일중립조약의 체결이 일시적인것이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자세히 해설해주시였다.

그리고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부 대원들속에서 나타난 사상적동요는 조선혁명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고 싸우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주체의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지 못한대원인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쏘련과 일본사이의 적대적갈등과 모순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사리정연한 분석은 대원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조직성원들에게 쏘일간의 가서 질수 없는 모순과 우리 혁명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해설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정세를 파악하고 신념을 가지고 싸워나가도록 대원들을 이끌어주시었다.

이 시기 신문들에는 일제가 영국,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교를 단절한 소식과 태평양상에 있는 필리핀의 어느 섬을 공격하고 수도를 점령했다느니, 말라이제도를 공격하면서 전과를 확대하고있다느니 하면서 굉장히 보도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정세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 일제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상으로 전쟁을 확대한다면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의 목적과 검은 속심, 그 압당한 전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시켜주시었다. 그러시고 일제가 태평양전선에서 전과를 올리고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의의 선제타격에 의한 일시적인 전과이며 전반적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어가고있다고 설명해주시었다.

김정숙동지의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식견은 대원들이 정세를 옳게 파악하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숭고한 모범으로 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완벽한 체현자, 옹호자가 되시였기에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구상을 적극 받들어나가실수 있었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깊이 체득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파악하시고 수령님의 구상을 받들어나가시었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군대가 필요없다느니,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정규군을 건설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시비해나섰고 다른 나라 일부 사람들은 한 나라에 군대가 둘 존재할수 있는가, 정규무력을 건설하겠다는것은 자기 나라 군대가 나가라는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각이한 주의주장과 원쑤들의 책동으로 복잡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일군들을 이끌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군대는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하고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군대,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 성격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평양학원개원식에 나가시여 새 조선의 군사간부를 키워내는 평양학원은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의 학교가 되어야 하며 모든 교육과 교양을 철두철미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군사학교의 교육방향을 밝혀주시었으며 인민군신문사에 나가시여서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장군님의 사상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군보는 김일성장군님의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던 뜻깊은 날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세계 그 어느 령장도 우리 장군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며 군대를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킨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인민군대는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로선을 받드시는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이었으며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드팀없는 신념으로 받들어 나가신 여기에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있고 쌓으신 업적이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쌓으신 업적은 다음으로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신 것이다.

수령의 사상에 도전하는 분파행위는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적배신자들이 가당게 되는 종착점은 다름아닌 반혁명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주저도 없이 투쟁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밖에는 그 어떤 다른것은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지니시고 반혁명적사상조류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었다.

사상과 신념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항일무장투쟁은 그야말로 사상과 신념을 지키는 대결장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28(1939)년 2월초 청봉밀영에서 있는 학습토론편이었다.

혁명의 배신자 엄가놈은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란 주관적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옮겨울과 같이 정세가 불리한 혁명의 《저조기》에는 적들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일단 물러서서 유리한 정세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궤변을 들고나왔으며 지어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국경지대로 진출하는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까지 시비증상하였다.

이자의 주장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위험한 견해라는것을 예리한 안목과 통찰력으로 포착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지없이 론박을 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당신이 조선혁명의 운명이 객관적정세에 결정적으로 의존되는것처럼 말하고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혁명가들이 정세가 불리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것은 사령관동지의 뜻이다, 혁명은 계속되는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우리는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원칙적이고 사리정연한 론거는 엄가놈의 패배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 궤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 주체28(1939)년 4월 북대정사에서 엄가놈의 죄행을 날날이 폭로규탄하시면서 우리는 비록 한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경향과는 타협할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높은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헐뜯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청봉사건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상수양을 잘하지 않으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고 불평분자, 의지박약자가 되어 어지간한 난관앞에서도 주저앉게 되며 나중에는 패배주의자가 되어 혁명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가장 엄혹했던 시련의 시기 김정숙동지께서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혁명대오안에 나타났던 사상적동요와 패배주의적배신행위에 맞서 투쟁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혁명대오의 사상적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공적으로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지 얼마후인 주체35(1946)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평양제4녀자중학교(당시)에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과 관련한 강연회가 있었는데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강연회가 류산되는 복잡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분격을 누르지 못하시며 강연회를 다시 진행하지 않으면 군중에게 주는 영향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강연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자신께서 출연하기로 하시였다.

반동놈들이 또 무슨 흥계를 꾸밀지 모르는 형편이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정권로선을 대중속에 알려주는 일인데 위험하다고 하여 그만둘수 없다고 하시면서 평양제4녀자중학교에 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정권을 굳건히 사수할데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얼마전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을 성대히 경축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성격에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인민의 원썬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미친듯이 날뛰어도 정의를 지향하는 인민의 념원을 꺾을수 없으며 전진하는 력사의 수레바퀴는 멈춰세울수 없다고 하시며 모두다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정권을 사수하며 새 민주조선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시였다.

론리정연하고 설득력있는 김정숙동지의 강연은 군중에게 인민정권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종파분자들이 《인권옹호》라는 구호를 들고나와 녀성운동에 혼란을 조성할 때에도 그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주

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 새 민주조선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며 기만적인 구호로 녀성들의 분열을 꾀하던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해버리시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지침으로 삼으시고 그와 어긋날 때에는 주저없이 나서시어 투쟁하시는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옹위정신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며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은 수령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견결히 옹호고수해온 사상과 신념의 승리의 력사, 수령결사옹위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오늘의 수령결사옹위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옹호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은 천만군민에게 수령의 전사는 수령의 사상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가르쳐주는 귀감으로 된다.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신 결출한 녀성혁명가,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수령결사옹위투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수령옹위, 사상론